

<서평>

##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B. M. 메츠거 저,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민경식\*

### 1. 서언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의 프로젝트로 프린스톤의 은퇴교수인 브루스 메츠거 (Bruce Manning Metzger) 박사의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판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미국에서 본문비평으로 학위를 받고, 현재 침례교신학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장동수 박사가 번역하였다. 원제는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이다.<sup>1)</sup> 신약성서 본문비평학과 신약성서 사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도로서 필자는 이 책의 출간을 환영한다. 이 책이 이제야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오래 전에 번역되었어야 할 책인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번역된 것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신약성서 본문비평을 전공으로 하거나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신약학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책의 번역이 늦어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영어로 된 원서를 읽을 수 있는 학자들에게는 굳이 번역서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신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일반 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번역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귀한 작업이다. 이에 이 책의 우리말 번역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우리말 번역본 출간이 우리나라 신약학 및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성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 책의 출간을 기획하고 추진한 대한성서공회와 번역자 장동수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번역서는 원서에 비해 조금 큰 치수로 출판되었다. 원서가 사륙판(4×6판)인 반면에 번역서는 신국판이다. 번역서는 약 700 페이지로 원서와 거의 같지만 용지의 차이로 훨씬 더 방대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번역서의 표지는 적색 양장으로 원서의 느낌을 잘 살려냈다.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강사, 신약학

1)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 2. 메츠거의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의 역사

메츠거가 처음으로 이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sup>2)</sup>을 출판한 해는 1971년이다. 교정본(corrected edition)이 1975년 나왔다. 메츠거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편집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또한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저술하였다. 그 당시 편집 위원들은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와 매튜 블랙(Matthew Black)과 칼로 마티니(Carlo M. Martini)와 브루스 메츠거(Bruce M. Metzger)와 앨런 위그렌(Allen Wikgren)이었다. 이 그리스어 본문 주석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나온 『그리스어 신약성서』(Greek New Testament)<sup>3)</sup>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독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와 함께 자매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주석서는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비평 본문을 구성한 근거와 배경, 또한 본문비평장치의 이문들의 발생을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94년에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판이 출판되었다. 이 책이 바로 이번에 한글로 번역된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의 대본이다. 1993년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4판이 출판되었는데,<sup>4)</sup> 그 다음 해인 1994년에 영어로 출판된 2판은, 그 성서의 부록으로 기획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어 신약성서』 3판이나 4판에 실린 본문이 같기 때문에, 메츠거의 본문 주석서도 1판과 2판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다만 『그리스어 신약성서』 4판의 본문비평장치가 3판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판에서 다루는 이문단락들이 변경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284개의 이문단락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273개의 이문단락이 탈락되었다.<sup>5)</sup> 또한 본문비평 이론을 다루는 부분을 새롭게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문 주석서 2판에서도 메츠거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편집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또한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 판의 편집 위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빠지고, 새로운 두 사람이 이 편집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의 편집 위원들은 독일의 바바라 알란트(Barbara Aland)와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 그리스의 요하네스 카라비도폴로스(Johannes Karavidopoulos), 이태리의 칼로 마티니(Carlo M. Martini), 미국의 브루스 메츠거(Bruce M. Metzger)였다. 개

2)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1).

3) K. Aland et al., *Greek New Testament*, 3r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68).

4) K. Aland et al., *Greek New Testament*,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5) K. Aland et al., *Greek New Testament*, 4th. ed., 2\*.

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를 모두 포괄하는 구성이다. 개신교에서는 독어권의 대표적인 본문비평학자인 알란트 부부와 영미권의 대표적인 본문비평학자인 메츠거가 참여하였다. 물론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 재구성과 본문비평장치 구성을 위한 기초 작업은 독일 뮌스터 시(市)에 위치하여 있는 “신약성서 본문 연구소”(Institut fü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 3. 그리스어 신약성서 GNT<sup>4</sup>와 NTG<sup>27</sup>

여기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4판(1993)에 대하여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성서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네스틀레-알란트(Nestle-Aland) 판이라고 부르는 독일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ae*) 27판의 본문과 동일하다.<sup>6)</sup> 그뿐만 아니라 두 그리스어 성서는 그 편집자들도 같다. 다만 본문비평장치가 서로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서로 다른 본문비평장치가 실린 두 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필요한지 질문하게 된다. 바로 이 두 권의 편집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Greek New Testament*)는 성서 번역자들을 위하여 편집되었으며, 네스틀레-알란트 판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ae*)는 학자들과 신학생들을 위하여 편집되었다. 따라서 편집 위원들은, 신학자들을 위하여 편집된 네스틀레-알란트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는 최대한 많은 이문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고, 반면에 성서 번역자들을 위하여 편집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는,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할 이문단락들만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편집자들은 네스틀레-알란트 판에는 최대한 많은 이문들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표기하여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본문비평장치의 거의 모든 표기가 기호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암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판의 본문비평장치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효의 이문단락들이 선택되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번역자들이 해독하기 쉽게 풀어서 표기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을 꼽는다면, 편집자들이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판에

6) K. Aland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ae*,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가장 최신판은 물론 27판이다. 그러나 27판 가운데서도 8쇄 이후의 것을 볼 것을 독자들에게 권한다. 1990년대 말에 새롭게 출판된 파피루스 사본으로 인하여 8쇄의 본문비평장치가 다소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서는 각 이문단락마다 그들이 본문으로 선택한 독법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하여 스스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본문비평장치의 각 이문단락마다 맨 앞에 { } 안에 A, B, C, D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해당 독법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이다. {A}는 본문으로 선택된 독법이 확실히 원독법이라는 것을 뜻하며, {B}는 본문으로 선택된 독법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C}는, 편집 위원들이 본문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끔씩 나타나는 {D}는 본문 선택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자는 {C}나 {D}로 평가된 이문단락의 본문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서 번역자가 그리스어 원문을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할 때, {C}나 {D}로 평가된 이문단락에서는 본문이 아닌 독법을 선택하여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메츠거의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그런데 가끔은, 이 주석서에 이러한 평가가 주어지지 않은 이문단락이 등장한다. 이러한 이문단락들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판 성서의 본문비평장치에 기재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것은, 메츠거의 본문 주석서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판 성서(GNT)의 본문비평장치에 수록된 모든 이문단락에 대한 본문 주석이 포함되지만, 그 이외의 단락들도 간혹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1:22; 2:5; 3:15; 6:4, 8, 12 등이 그러하다. 물론 이 이문단락들은 네스틀레-알란트 판 성서(NTG)의 본문비평장치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메츠거의 주석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신약성서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네스틀레-알란트 신약성서의 독자들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참고서라고 말할 수 있다.

#### 4. 신약성서 본문비평 전문용어

이제 우리말 번역서의 제목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이라는 제목에서 번역자와 성서공회의 번역 담당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원서의 제목을 문자대로 번역하여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 주석』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면, 일반 성서 주석서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일반적 의미의 성서 주석서라기보다는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본문의 전승과정을 논하는 본문 주석서이다.<sup>7)</sup> 어떤 의미로는 이 책이 신약성서 본문비평학을

7) 저자 메츠거는 이 책의 서론에서 성서 주석서와 본문 주석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부분의 성서 주석서는 단어와 구의 의미, 성서 본문의 사상을 근접한 문맥과 광범위한 문맥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본문 주석은 구절의 원문이 무엇인가라는 우선적인 문제를 다룬다”(1\*).

위한 기본적인 참고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책에 『신약성서 본문비평』이라는 제목을 달았다면, 이 책이 본문비평 이론서라는 오해를 받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이라는 제목에는 이 책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그리스어 본문의 형성과 본문의 변천 과정을 설명해 주는 “본문” 주석서이기 때문이다.

제목 선택뿐 아니라, 본문의 번역에서도 번역자의 노고와 애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전문 용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신약성서 본문비평이라는 학문 분야가 아직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문분야의 전문 용어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본문비평의 전문 용어들을 우리말로 체계화하여 정리하는 데 이 번역서가 많이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예를 들면, “호모이오텔로이톤”(Homoioteleuton)<sup>8)</sup>이라는 현상이 있다. “유사문미” 또는 “동형어미”로 번역되는 “호모이오텔로이톤”이란,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의 끝(A)이 인접한 다른 단어 또는 문장의 끝(A')과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사상의 오류이다. 즉 필사하는 사람이 A까지 필사한 후에 A에 이어지는 부분을 필사하였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만 A'에 이어지는 부분을 필사함으로써 A와 A' 사이에 있는 부분을 빠뜨리게 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결국 생략(omission)의 한 유형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자.

Ⓜ<sup>37</sup>이라는 파피루스 사본이 있다.<sup>9)</sup> 이 파피루스 사본의 뒷면에는 마태복음서의 예수 체포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서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다(마 26:47). 이제 유다는 예수에게 키스함으로써 예수가 누구인지를 무리에게 알려줄 것이고, 무리는 유다가 키스하는 사람을 체포할 것이다(마 26:48). 유다가 그 무리와 약속한 대로 예수에게로 다가가서 “말하였다”(εἶπεν).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리고는 예수에게 입을 맞추었다(마 26:49).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에

8) 독일어권에서는 “Homoioteleuton”이라고 표기하고 “호모이오텔로이톤”에 가깝게 발음하나, 영미권에서는 메츠거와 같이 “Homoeoteleuton”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리스어 합성어 (ὁμοιοτέλετον)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전반부는 “같은” 또는 “비슷한”을 의미하고 후반부는 “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는 “비슷한 끝” 또는 “동일한 끝”이라고 할 수 있다.

9) 3-4세기의 사본으로 현재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P. Mich. 137). 발견된 장소는 정확하지 않다. 내용은 마태복음 26:19-52이다. 다음의 논문으로 출판되었다. H. A. Sanders, “An Early Papyrus Fragment of the Gospel of Matthew in the Michigan Collection,” *Harvard Theological Review* 19 (1926), 215-226. 이 외에도 최근의 연구로 Kyoung Shik Min, *Die früheste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zum 3./4. Jh.): Edition und Untersuchung*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83-110을 보라.

게 “말하였다”(εἶπεν).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또는 “친구여, 네 할 일을 해라!”)(마 26:50). 그런데 ϩ<sup>37</sup>의 필사자는 실수로 그만 첫 번째 “말하였다”(εἶπεν)와 두 번째 “말하였다”(εἶπεν)를 혼동하여, 이 두 “말하였다”(εἶπεν) 사이에 있는 내용을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따라서 ϩ<sup>37</sup>의 본문에 따르면, 유다가 무리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다. 유다는 예수께 입을 맞추으로써 예수가 누구인지를 무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는 예수에게로 와서 “말하였다”(εἶπεν). “친구여, 무엇 하러 여기에 왔느냐?”(또는 “친구여, 네 할 일을 해라!”) 이러한 실수의 경우는 동형문미라는 번역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문장의 끝이 같기 때문이다(“말하였다”(εἶπεν)). 그러나 이러한 오류가 항상 똑같은 형태의 두 단어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형태의 두 단어가 필사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ταῦταις”와 “αὐτοῖς”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따라서 형태가 같음을 의미하는 “동형”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단지 비슷하다는 뜻을 지닌 “유사”라는 용어를 쓸 것인가 하는 것도 민감한 문제다. 이 선택의 문제는 어쩌면 그리스어 “호모”(ὁμοιος)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까지 소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작은 단위에서는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문미”라는 어휘가 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 단어의 끝부분과 인접한 다른 단어의 끝부분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의 경우에는 “문미”보다는 단어의 끝을 의미하는 “어미”라는 어휘가 더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항상 문장의 끝에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번역자는 이 용어를 직접 번역하지는 않고 음역하였다(이 책의 서론, p. 3\*을 보라).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23을 다루는 단락에서 이 용어를 “행의 끝이 같음”으로 표현하였다(p. 22). 또한 누가복음 10:32를 다루는 단락에서는 “동일말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p. 124). 필사는 이러한 종류의 전문용어들이 우리말에서 적절한 상용어를 찾게 되기를 바라며, 이 문제가 학계에서 공론화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전문용어 선택의 문제는 단지 이 몇몇 단어의 번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 단어 또는 문장이 빠져있음을 의미하는 “오미션”(omission)을 “생략”(省略)으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탈락”(脫落)이나 “누락”(漏落), 아니면 “삭제”(削除)로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삭제”라는 표현은 필사자가 고의로, 또는 적어도 의식적으로 대본의 일부 내용을 빠뜨렸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수로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을 빠뜨릴 경우에 삭제라는 용어를 선택하면 독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 번역자는 “생략”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였는데,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마

찬가지로, 없어야 할 요소(그것은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다)가 덧붙은 경우를 의미하는 “어디션”(addition)을 “첨가”(添加)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追加)나 “부가”(附加)나 “삽입”(挿入)으로 번역할 것인가도 민감한 문제이다. 디토그래피(Dittography)는 일반적으로 중복필사(重複筆寫) 또는 중복오사(重複誤寫)로 번역된다. 하플로그래피(Haplography)는 일반적으로 중자탈오(重字脫誤)로 번역된다. 이러한 종류의 예는 무수히 많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본문 비평의 전문 용어들을 우리말로 체계화하여 정리하는 데 이 번역서가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 5.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의 구성과 내용

이제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자. 표지를 넘기면 판권 및 속표지, 목차에 이어 서문을 볼 수 있다. 서문이 세 개 실려 있는데, 1판 서문과 2판 서문, 그리고 저자의 한국어 번역판 서문이 역순서로 실려 있다. 서문에 이어 긴 서론이 나온다. 여기서 메츠거는 먼저 본문 연구를 시도한 19세기와 20세기의 본문 주석서에 대한 짧은 연구사를 제시한다. 메츠거의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이후에는 신약성서 본문비평이 학계의 큰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츠거는 서론에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필사본으로부터 출판본에 이르기까지의 신약성서 본문의 전달 과정이다. 여기서 그는 먼저 이문들의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기독교 교회의 초기부터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 신약 문서들은, 다른 일반 문서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필사되었다. 필사자는 대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이문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메츠거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를 설명한다. 본문비평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는 이문의 발생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어 그는 초기 번역본에 대하여 개괄적인 수준에서 설명한 후에, “본문유형”을 소개한다. 여기서 메츠거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본문유형”을 소개하는데, 그가 소개하는 “본문유형”은 “지역본문 가설”에 매우 가깝다. 이 지역본문 가설이란, 각각의 “본문유형”은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특정한 지역, 즉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등을 대표하며, 또한 그 지역의 특정한 언어인 라틴어와 콥트어와 시리아어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본문”은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결국은 그 지역 특유의 “본문유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다. 메츠거는 지역본문으로 네 가지의 “본문유형”을 소개한다. “알렉산드리아 본문유형”, “서방 본문유형”, “동방 본문유형(또는 가이사라 본문유형)”, “비잔틴 본문유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적 의미의 지역본문 가설은 오늘날 그 힘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서방본문”의 경우, 이 “본문유형”이 결코 서방에서 생성된 것도 아니고, 서방에서 발전된 것도 아닌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서방본문”은 동방, 특히 시리아 지역에서 발전되었으리라 여겨진다.<sup>10)</sup> “서방 본문유형”의 발생과 발전과정에 대하여는 조금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알렉산드리아 본문유형”과 “가이사라 본문유형”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문자적 의미의 “지역본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sup>11)</sup> 메츠거의 “본문유형”에 대한 소개는 노(老)학자의 견해로 1970년대의 이론을 반영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메츠거는 이어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의 신약성서로부터 이어진 신약성서 인쇄본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신약성서 인쇄본의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왜 19세기 말까지 비잔틴 본문이 신약성서의 주류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비잔틴 본문을 흔히 “수용본문”(Textus receptus) 또는 “공인본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본문은 후대의 소문자 사본에 근거하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본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수용본문이 일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영미계통과 독일계통의 매우 유력한 성서가 이 전통을 따르기 때문이다. 1611년 영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킹제임스역』(King James Version)과 1522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성서』(Lutherbibel)가 수용본문의 전통을 대표한다. 수용본문은, 1881년 영국 캠브리지의 두 학자인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가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판을 출판하기까지, 수 세기 동안 교회의 공인본문으로 그 위세를 누렸다. 따라서 16-17세기에 출판된 『킹제임스역』과 『루터성서』가 수용본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비평본이 수용본문을 대체한 이후로는 수용본문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오늘날 번역대본으

10) B. Aland, “Entstehung, Charakter und Herkunft des sog. westlichen Textes untersucht an der Apostelgeschichte,”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62 (1986), 5-65을 참조하라.

11) 최대한으로 메츠거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학자는 엘돈 엡(Eldon J. Epp)이다. 그는 메츠거의 뒤를 이어 네 가지 “본문유형”을 전제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사본들을 구분하려고 시도하지만, 메츠거와 같은 차원의 지역본문 가설은 이미 포기하였다. 엡(Epp)의 이론에 대하여는 Eldon J. Epp, “Textual Criticism (NT),”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New York: Doubleday, 1992), 412-435, 특히 430-431을 참조하라. “본문유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신약논단』 12권 (2005), 157-196을 참조하라. 특히 162-174를 보라. 이 외에도 B. Aland, “Textgeschichte / Textkritik der Bibel, II: Neues Testament,”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XXIII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1), 155-168, 특히 164-165를 보라.

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약성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Greek New Testament*)로 역시 비평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역한글판』이나 『새번역』 모두 비평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메츠거가 서론에서 다루는 두 번째 큰 주제는 본문비평 이론에 대한 소개이다. 다양한 이문들 가운데서 한 가지 독법을 본문으로 채택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 대한 것이다. 이문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우리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구분한다. 외적 증거란, 사본 자체의 질과 관련된 외적 판단 기준이다. 반면에 내적 증거는 저자와 필사자를 고려하는 판단 기준이다. 즉, 내적 증거는 필사자들의 필사 방식 또는 필사 습관을 고려하며, 또한 저자가 기록하였을 법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메츠거가 분명하게 밝히듯이, 이러한 판단 기준들은 결코 “기계적이거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문들을 평가하고 한 독법을 본문으로 선택할 때에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즉,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메츠거가 서론에서 다루는 세 번째 주제는 “본문 유형별 증거 사본들의 목록”이다. 그는 신약성서 사본 그룹을 셋으로 설정하고(알렉산드리아 증거, 서방 증거, 비잔틴 증거), 각각의 사본들을 그 특성에 따라 각 그룹에 포함시킨다.<sup>12)</sup> 그러나 독자는 이러한 구분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말하자면, 비잔틴 본문만이 진정한 “본문유형”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서론에 이어 본론이 나오는데, 본론은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본문”에 대한 주석이다. 각 이문 단락별로 본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 및 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한다. 따라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마태복음서 21장에는 그리스어 본문에 문제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흔히들 “두 아들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의 비유인데(마 21:28-31), 이 단락의 본문 전승은 매우 혼란스럽다. 비유의 내용은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였는데, 그 아들은 처음에 싫다고 대답하였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

12) 엡(Epp)은 이것을 더 발전시켰다. Eldon J. Epp, “The Significance of the Papyri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New Testament Text in the Second Century: A Dynamic View of Textual Transmission,”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Studies and Documents 45, E. J. Epp and G. D. Fee (eds.) (Grand Rapids: Eerdmans, 1993), 274-297을 참조하라. 물론 엡은 사본을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는 메츠거의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 K. Wachtel, *Der byzantinische Text der katholischen Briefe*, 22-23을 보라. “본문유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171-174를 보라.

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 그 아들은 가서 일하겠다는 대답만 한 후에, 일하러 나가지 않았다. 이에 예수께서 질문하셨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나?” 그런데 많은 사본에는 불순종하였다가 뉘우치고 뒤늦게 순종한 아들이 큰아들로 묘사되고, 또 다른 많은 사본에는 그 아들이 작은아들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뒤늦게 뉘우치고 순종한 아들은 누구인가? 큰아들인가 아니면 작은아들인가? 또한 예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도 사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본은 불순종하였다가 후에 순종한 아들(그가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다고 보도하는 반면에, 일부 사본은 가졌다고 하였다가 일하러 가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라고 보도한다. 메츠거는 이 주석서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 먼저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의 본문을 제시한다. 메츠거가 정리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하자.<sup>14)</sup>

(가)  $\aleph C^* K W \Delta \Pi it^{c,q} vg syr^{c,p,h}$  등에 따르면, 큰아들이 “아니오”라고 말한 후에 뉘우쳤다. 작은아들은 “예”라고 말하였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가에 대한 대답은 큰아들이다.

(나)  $D it^{a,b,d,c,ff^2,h,l} syr^s$  등에 따르면, 큰아들이 “아니오”라고 말한 후에 뉘우쳤다. 작은아들은 “예”라고 말하였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가에 대한 대답은 작은아들이다.

(다)  $B \Theta f^{13} 700 syr^{pal} arm geo$  등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예”라고 말하였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아니오”라고 말한 후에 뉘우쳤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가에 대한 대답은 작은아들이다.

메츠거는 위의 세 가지 형태 가운데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그는 “위원회에서는 필사과정에서 실수를 한 필사자들, 혹은 반(反)바리새인 편견을 지닌 필사자들이 이문(나)를 만들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가) 또는 (다) 가운데서 원문의 독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메츠거는 외적 증거뿐 아니라, 내적 증거에 따라서 (가)의 독법이 우세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말 성서 『개역개정판』은 독법 (다)를 대본으로 번역되었기에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으로 보도되며, 『새번역』은 (가)를 대본으로 번역되었기에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역 모두 오역이 아니다. 두 번역본이 다른 이유는, 번역 대본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스틀레-알란트 25판에는 (다)의 독법이 본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말 『개역개정판』뿐 아니라 그 그리스어 성서를 대본으로 번역된 모든 번역본에 (다)의 독법이 실려 있는 것이다.

14) B.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45-46을 보라.

그러나 독자들은 메츠거의 설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메츠거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읽고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독법이 더 우수하다는 논증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문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독자들은 메츠거의 설명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메츠거의 설명을 기반으로, 독자들이 이문 발생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두 번째 독법, 즉 가졌다고 하고 가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다는 독법은, 두 아들의 반복과 반전이 거듭되는 논리구조 때문에 일어난 필사상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다)의 독법은 원시 또는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 유대인이 큰아들로, 기독교인들이 작은아들로 전제되었던 정황에서 기인한 이문이 아닐까 질문할 수 있다.

위원회의 본문 채택에 대한 메츠거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독자는 본문으로 채택된 독법을 이차적인 것으로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마태복음서 21장 44절이다. 이 절은 전체가 꺾쇠괄호 안에 들어있다. 꺾쇠괄호 안에 본문이 들어있다는 것은 위원회가 해당 본문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의 절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이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서의 병행단락(눅20:18)에서 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sup>15)</sup> 이 절이, 비록 꺾쇠괄호로 묶이기는 하였지만, 본문에 포함된 것은 강력한 외적 증거의 영향이다. 대다수의 사본이 이 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7년  $\mathfrak{P}^{104}$  (P. Oxy. 4404)<sup>16)</sup>가 출판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mathfrak{P}^{104}$ 에 대한 본문비평적인 연구 결과, 이 파피루스 사본은 매우 초기의 사본일 뿐만 아니라, 매우 우수한 본문이 수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sup>17)</sup>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마 21:44를 과감하게 본문에서 제거할 수 있는 사본의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 사본이 신약성서 본문비평학계에 소개되기 이전에 출판된 메츠거의 책은, 그 이전의 판단 결과만을 알려준다. 이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다. 메츠거는, 이미 1970년대 초반에 재구성된 비평본의 본문을 그 당시의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근거로 논증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신약성서 사본 출판 및 신약성서 본문비평학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15) 이와 관련하여, 민경식 “마태복음서 21장 44절과  $\mathfrak{P}^{104}$ ,” 『종교와 문화』 11호 (2005), 105-118을 보라. 위의 논문은 마 21:44가 후대의 필사자의 삽입임을 논증하며, 결과적으로 이 절이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피하겠다.

16) J. D. Thomas, *The Oxyrhynchus Papyri LXIV* (London: 1997), 7-9 (no. 4404).

17) Kyoung Shik Min, *Die früheste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zum 3./4. Jh.)*, Arbeiten zur neutestamentlichen Textforschung, Bd. 3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234-239를 보라.

다만 독자는 메츠거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읽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며 창의적인 사고와 판단을 해야 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비평본의 본문은 결코 “원문”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신약성서 사본들을 연구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본문이다. 이 본문은 완전할 필요도 없으며, 또 완전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본문을 변증하는 메츠거의 설명도 결코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울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메츠거의 설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의 깊게 읽고,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메츠거의 이 책에는 또 다른 하나의 긴 서문이 있다. 바로 사도행전 서문 단락이다. 다른 모든 책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서문이 없지만, 유독 사도행전 앞에는 십여 페이지에 걸친 서문이 있다(pp. 214-227). 또한 메츠거는 사도행전 본문 주석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였다. 네 복음서의 본문 주석을 모두 합친 것보다 사도행전 본문에 대한 주석이 오히려 더 길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바로 “서방본문”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베자사본(Codex Cantabrigiensis (=05))과 몇몇 파피루스 사본, 그리고 몇몇 고대 번역본에 간직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서방본문”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경 사도행전보다 거의 십분의 일이 더 길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본문은 길이뿐만 아니라 그 특징도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이 두 가지 형태의 본문의 유래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메츠거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두 본문형태가 한 사람의 작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다. 두 번째는 어느 본문형태가 더 초기의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두 본문형태가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오늘날 문제의 초점은 어느 본문형태가 더 초기의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과연 후기의 본문형태는 언제,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서방본문”이 후대의 것이라는 데 학자들의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지만, 이 “서방본문”의 유래에 있어서는 어떤 가설도 일반적인 동의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서평이라는 본 글의 성격과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방본문”의 유래 및 성격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는 피하도록 하겠다. 다만, 여기서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는 글 하나를 소개함으로써 메츠거의 연구사를 보충하고자 한다. 바로 벨기에의 저명한 학자인 델로벨(J. Delobel)의 논문이다.<sup>18)</sup> 이 논문에서 그는 “서방본문”의 유래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잘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 있게 각 가설을 장단점을 평

18) J. Delobel, “The Text of Luke-Acts: A Confrontation of Recent Theories,” *The Unity of Luke-Acts*, J. Verheyden, ed.,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9), 83-107.

가하고 있다. 이것이 비록 이미 몇 해 전에 쓰인 글이지만, 메츠거가 정리한 연구사를 보충하기에는 적합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마지막은 부록(Appendix)이다. 신약성서 그리스어 사본의 보충 목록이다. 그런데, 이 보충 목록도 이미 오래 전의 것이기에 또 다시 보충되어야 한다. 2005년 8월 1일 현재 우리는 118개의 파피루스 사본과 318개의 대문자 사본과 2877개의 소문자 사본과 2433개의 성구집을 갖고 있다. 이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의 목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sup>19)</sup> 이 목록이 출판된 이후의 최근 정보를 알고자 하는 독자는 독일 뮌스터 시의 신약성서 본문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신약성서 본문 연구소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uni-muenster.de/NTTextforschung/INTF.html>

## 6. 결론

메츠거의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은 신약성서 본문비평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신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이 책은 신약학 전공자들에게는 필수품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본문에 대한 본문비평 작업을 하지 않고 신약학 관련 논문을 쓴다는 것은, 마치 집짓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는데, 그 바닥이 모래인지 아니면 튼튼한 반석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선택한 본문의 전송 과정의 문제점 및 정확도를 인식하지 않고서 그 구절을 근거로 자신의 논지를 펴 나가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신약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신약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책의 한계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출판된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1994년 개정판이 출판된 이후에도 이 책의 저자인 메츠거는 이 개정판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 수정목록이 바로 우리말 번역본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sup>20)</sup> 따라서 우리말 번역본의 독자들은 현재로서는 메츠거 본문 주석서의 최첨단 수정판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 Kurt Aland, *Kurzgefasste Liste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zweite, neubearbeitete und ergänzte Aufl.,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4).

20) 그러나 변경된 사항이 많은 것은 아니다. 변경된 사항은 부록에 실려 있는 소문자사본의 연도와 관련된 것이 대다수이다.

고, 최근의 신학적, 특히 본문비평적인 발전과 변경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책과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본문비평학의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 두 권을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권의 교과서로는 메츠거의 책이 있고,<sup>21)</sup> 독일어권의 교과서로는 쿠르트 알란트와 바바라 알란트의 책이 있다.<sup>22)</sup> 이 외에도 신약성서 본문비평을 다루는 글들이 많이 있다. 짧은 개론적 소개로는 엡의 글<sup>23)</sup>과 바바라 알란트의 글<sup>24)</sup>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또한 메츠거의 본문주석을 번역한 장동수가 최근에 출판한 저서<sup>25)</sup>도 본문비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말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메츠거의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이 훌륭한 참고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책은 본문비평작업에 대한 훌륭한 안내서로 활용될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책은 결코 해당 본문의 독법 선택의 배경 및 근거를 만족할 만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자는 메츠거의 설명에 만족하지 말고, 그의 설명을 기반으로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나름대로 스스로 본문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일반 주석서 및 관련 서적 또는 논문의 도움을 폭넓게 받아들 수 있다. 즉, 독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메츠거의 설명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반대하고 새로운 해석 및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책은 참고서이다. 참고서라는 것은, 이 책은 독자가 참고해야 할 뿐이지, 결코 정답을 제공하는 답안지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 책이 참고서라는 말은 또한,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분을 찾아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이다.

메츠거의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은 한 구절 한 구절의 본문 선택의 근거만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성서의 형성과 전승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바람직한 성서관(聖書觀)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

---

21) 메츠거의 책을 어만(Bart D. Ehrman)이 개정하여 올해 출판하였다. Bruce M. Metzger and Bart 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2) Kurt Aland and Barbara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23) Eldon J. Epp, "Textual Criticism (NT),"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New York: Doubleday, 1992), 412-435.

24) Barbara Aland, "Textgeschichte / Textkritik der Bibel, II. Neues Testament,"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XXIII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1): 155-168.

25)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9-153.

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인하여 신약성서 본문비평이라는 학문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그리스어 신약성서, 신약성서 본문비평, 신약성서 사본, 본문 주석, 서방본문, 메츠거.

GNT<sup>4</sup> and NTG<sup>27</sup>,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New Testament Manuscripts, Textual Commentary, “Western” Text, Bruce M. Metzger.

\* 참고문헌

- 민경식, “마태복음서 21장 44절과 Ⓟ104,” 『종교와 문화』 11 (2005), 105-118.
-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신약논단』 12 (2005), 157-196.
-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 Aland, K. et al., *Greek New Testament*, 3rd ed.;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68, 1993.
- Aland, K.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Aufl. 8. Druck,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Aland, B., “Entstehung, Charakter und Herkunft des sog. westlichen Textes untersucht an der Apostelgeschichte,”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62 (1986), 5-65.
- Aland, B., “Textgeschichte / Textkritik der Bibel, II: Neues Testament,”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XXIII,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1, 155-168.
- Aland, K. *Kurzgefasste Liste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zweite, neubearbeitete und ergänzte Aufl.,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4.
- Aland, K. and Aland, B.,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Delobel, J. “The Text of Luke-Acts: A Confrontation of Recent Theories,” J. Verheyden, ed., *The Unity of Luke-Act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9, 83-107.
- Epp, Eldon J., “Textual Criticism (NT),”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New York: Doubleday, 1992, 412-435.
- Epp, Eldon J., “The Significance of the Papyri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New Testament Text in the Second Century: A Dynamic View of Textual Transmission,” E. J. Epp and G. D. Fee, eds.,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Studies and Documents 45, Grand Rapids: Eerdmans, 1993, 274-297.
- Metzger, Bruce M., and Ehrman, Bart D.,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Min, Kyoung Shik, *Die früheste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zum 3./4. Jh.): Edition und Untersuchung*,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Sanders, H. A., "An Early Papyrus Fragment of the Gospel of Matthew in the Michigan Collection," *Harvard Theological Review* 19 (1926), 215-226.

Thomas, J. D., *The Oxyrhynchus Papyri*, LXIV,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Wachtel, K., *Der byzantinische Text der katholischen Briefe*,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Abstract >

Book Review-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Bruce M. Metzger, trans. D.S. Chang, Seoul: Korean Bible Society, 2005)

Dr. Moshe Kyoung-Shik Min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ly published Korean version of Bruce M. Metzger's book,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translated by D. S. Chang (Seoul: Korean Bible Society, 2005). It does not, however, aim to examine the translation itself, nor does it go into detailed criticism of this volume. Instead, it introduces the commentary to Korean readers who are not well informed in the area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First of all, the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commentary, which will guide not only scholars but also students and readers in general in the performance of text-critical work for their own research. The paper also summarizes some parts of the textual commentary and introduces trends in modern scholarship related to the subjects discussed, pointing out both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is volume. In addition, it tries to show how we can bring this commentary into actual use.

One of the most valuable contributions of this textual commentary is the fact that it helps us to understand how our New Testament came to us over a period of almost 2,000 years, introducing how textual variants came into being, and showing how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original readings from the others.

It is especially to be hoped that this Korean version of the textual commentary will awaken the interest of students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n Korea.